

# 계파 세력화 선 그은 與 민들레... '親윤계' 결집 우려 여전

(민심 들어볼래)

“누구나 참여 가능 플랫폼” 해명  
과거 모임들, 당내 갈등 요소 꼽혀  
대부분 親尹... 갈등 가능성 존재

국민의힘에서 계파 갈등이 다시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친윤(親尹석열)계 일부 의원 주도로 만든 공부 모임 ‘민들레’ (민심 들어볼래) 출범을 앞두면서다. 구성과 운영 방향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했지만, 민들레 모임을 둘러싼 ‘계파 세력화’ 시선은 여전하다. 당초 민들레는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부 모임 취지로 출범하려 했다. 주요 정책과 정치 현안에 대해 연구와 소통으로 국회의원 역량과 유대 강화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모임 간사인 이용호 의원 설명이다. 역량과 유대 강화로 당의 화합과 결속도 도모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문제는 친윤계 의원들 위주로 민들레 모임에 참여하면서 생겼다. 2000년대 들어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때 만든 공부 모임처럼 친이(親李明박), 친박(親朴근혜) 등 계파 세력과 차원의 행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공부를 이유로 모인 것이라고 밝힌 과거 모임들은 주기적으로 주요 국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접견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현안에 대해 강의 듣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선거 기간에 공부 모임은 계파가 결집하는 구심점으로 작용했고, 당내 갈등 요소로 꼽혔다. 계파 갈등이 극심해졌을 때 해당 모임들은 자진 해산하기도 했다.

계파 세력화 시선에 이용호 의원은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민들레’ 모임에 대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오픈 플랫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민들레’는 아직 출범조차 하지 않았고, 의원 명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민들레’는 결코 특정한 중심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세력 규합을 위해 구성되는 조직이 아니며, 그렇게 운영될 일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해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좌장 격인 장제원 의원도 전날(11일) SNS에 민들레 모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원들 간 건강한 토론, 교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모임들이 활성화될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계파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오픈 플랫폼이라고 열어둔 민들레 모임에 현재

까지 참여하기로 한 의원 대부분은 범 친윤계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운영진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까지 경선 캠프나 인수위원회에 참가한 측근 그룹이 참여하고 있다.

계파 결집 행보로 해석되는 만큼 향후 선거 국면에서 갈등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우려다. 우선 계파 세력 결집 가능성을 차단했지만, 언제든 모임 성격이 바뀔 것이라는 해석에서 나온 것이다. 이미 계파 세력화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만큼 쉽게 불식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 때문에 과거 한나라당·새누리당 소장파 모임인 ‘새정치수요모임’, ‘아침소리’처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과 정부에 쓴소리하는 견제 성격으로 모이는 게 특정 계파 결집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야 구분 없이 특정 주제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참여하도록 문호를 넓히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부 모임이라는 취지에 맞게 여야 의원들이 모여서 민생 관련 법안을 두고 토론하고 연구하면, 자연스럽게 정치적 세력 규합 논란도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에서도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지난 1년 성공적... 안정적 국정 뒷받침 과제” 이상호 “분열의 언어 쓰지 말라”

(민주당 비대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취임 1년  
“당대표로 ‘자기 정치’도 할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1년 동안 저에게 주어진 지상과제라고 생각한 정권 교체, 여러 개혁 과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 1년은 여당으로서 어떻게 국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지가 과제”라며 진일보한 정책 추진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당대표로서 ‘자기 정치’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12일 오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 동안 저에게 주어진 역할은 이미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한다. 정권교체,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정권 초 동력을 유지하는 것까지, 그것만 바라보고 쉴 새 없이 달려왔던 기간”이라고 소회를 밝힌 뒤 이같이 말



했다.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지난 1년간 성과로 ▲정권교체 ▲토론패틀로 당 대변인 선발 ▲취약한 지역·세대 공략 노력 ▲당원 수 늘리기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PPAT) 도입 등을 꼽았다. 이어 “(정권교체 이후에도 우리 앞에 놓인) 대내외적 경제 환경이나 국제 사회 사정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이를 극복하고 정부가 성공하는 것은) 우리 당,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저에게도 큰 도전이고 성과를 내는 것은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며 ▲공천 개혁 ▲더 강한 수준의 ‘서진’ 전략 ▲보수정당 내 탈권위 문화 정착 ▲진일보한 정책 추진 ▲새로운 방식의 복합과 관계 개선 ▲미래 먹거리 및 담론 발굴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공천 제도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당 혁신위원회에서 공천 제도 개혁을 예고한 데 대해 당내 비판 여론이 일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혁신위원회에서 추진할 공천 제도 개혁 문제와 관련 “2024년 총선에서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201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진박(眞朴근혜) 계파’ 갈등으로 국정 주도권을 잃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까지 이른 점에 대해 이 대표는 “그렇기에 총선 승리를 위해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어떤 방향이 옳은지는 우리 당 구성원이 합의하고 총의를 모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인신공격, 흑색선전 등 엄격 금지  
소통 활발한 것 좋지만 공격 우려”  
민주당 분당 사태 거론... 해결 의지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12일 당의 다양한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계파적 분열 양상에 대해 해선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내의 여러 가지 제도문제, 정책, 노선과 비전에 대해서 저는 더 활발한 토론을 보장할 생각”이라며 “그러나 인신공격, 흑색선전, 계파적 분열의 언어는 엄격히 금지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6·1 지방선거 패배 이후 ‘친(親)이재명계’ 의원과 ‘반(反)이재명계’ 의원들의 감정 싸움이 격화되고 있는데, 이를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친이재명계’인 김남국 의원과 ‘비이재명계’인 이원욱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 상에서 설전을 주고 받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의 주요한 인사들, 특히 주요 당직자나 국회의원의 신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각별히 더 절제의 언어를 사용해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한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당 내의 다양한 견해는 다양하게 분출되는 것이 좋다”면서도 “감정을 건드리는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 비대위를 정리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이를 의식할 필요 없



다”며 “당에 해가언어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겉으로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속으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자”를 뜻하는 은어인 ‘수박’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수박 같은 단어를 쓰는 사람을 가만 두지 않겠다”며 “특정 과일에 대해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 품격 있는 논쟁과 건강한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불만을 가진 당원들이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집중적으로 연락을 하는 현상인 ‘문자 폭탄’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른바) 팬덤 문화에 대해서 당이 건강하게 토론해 볼 생각이 당이 ‘그들만의 리그’, (혹은) ‘국회의원 리그’로 전락하지 않는 동시에 건강한 당원과 소통구조 만들어서 얻는 것이 당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계파 분열 양상에 대해서도 2016년 민주당 분당 사태를 거론하며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아픈 경험이 있으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단합돼서 위기를 극복하고 정권교체를 했다”며 “대선 경선 갈등이 항상 계파 갈등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그 연장선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계파갈등 비화되는 것을 건강한 토론 논쟁으로 전환시킬 자신 있다”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존폐기로’ 정의당 “죽을 힘 다해 개선”

“가능성 만드는 것, 우리의 역할”

6·1 지방선거 참패로 대표단이 총사퇴한 정의당이 “어떤 경우라도 우리 스스로 가혹하게 우리 안에 진짜 문제를 찾아내고, 죽을 힘을 다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쇄신에 나섰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동료 당원, 전국위원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렇겠지만, 참담하고 또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제 개인적으로 27년의 긴 노조 활동과정에서 조직이 무너질 듯한 위기의 순간을 여러 번 겪었지만, 조직 활동에서 겪게 되는 위기 정도는 이제 이골이 난 만큼 멋지게 풀어갈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다”라며 “그러나 정치의 세계는 다르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책임성의 제단 위에

우리가 서 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선거에 참패했다는 것, 의석을 잃었다는 것이 아닌 정의당의 정치가 ‘지속가능한 가’라는 시민의 물음”이라며 “다 잘될 거야”라는 낭만적 낙관성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이다.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고유한 역할”이라며 “비록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우리 스스로의 문제에서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시민들은 다시 우리에게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